

제26차 북미주K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 개최

“기독교 사업인의 사명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

제26차 북미주K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6월29일부터 1일까지 '라이프 온 라이프 사역의 열매 이야기'라는 주제로 로스앤젤레스 공방 매리어트호텔에서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미주 각 지회 및 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참석해 비즈니스를 일터교회로 삼아 삶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생한 간증을 나누는 한편, 지난 5년간 큰 변화를 맞았던 북미주CBMC 사역들을 돌아보고 향후 5년의 방향을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한국 CBMC 중앙회에서 김영구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했고 아시아 총연합회에서 최중현 회장을 비롯23명, 그리고 중국 총연합회 배양희 회장 및 7명의 회원 등 한국과 아시아에서 6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국 테헤란로 yCBMC에서도 13명의 지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테헤란로 지회의 변화와 사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대회 개최 예배에서는LA주인의 교회 담임 최혁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유일한 관객'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제26차 북미주 KCBMC LA 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북미주 KCBMC

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식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의식으로 바꿀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첫날 주제강연에서는 미국 CBMC CEO 프랭크 켈리(Frank Kelly)가 참석해 '목적과 힘을 가지고 일하고 생활하기(Living & Working with Purpose & Power)'라는 제목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일해 왔는지 간증했다. 그는 목적과 힘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 '우주적인 목적', '특수 목적', '성령의 힘' 네 가지를 주목하면서 사도행전 1장8절과 에베소서 5장18절을 들어, 일터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모든 강사와 강의 주제강연은 CBMC 회원들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이는 CBMC 회원들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일터교회 현장에서의 변화를 서로 나누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둘째날 주제강연은 12대 북미주CBMC 회장을 지낸 박상근 증경회장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박 회장은 CBMC 회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전도'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했다. 또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영혼 전도를 위한 노력이 많은 결실을 맺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폴 현 사무총장은 마지막날 주제강연에서 현재 북미주 CBMC의 방향인 라이프 온 라이프(Life on Life)를 위해서는 삶을 통한 전도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복음, 시간, 관계에 있어서 헌신성, 일관성, 지속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미주 KCBMC 변화의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현재 확고한 라이프 온 라이프로의 사명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서게 했고, 이에 일터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양육까지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내년 북미주 KCBMC 제27차 대회는 미국 동부 워싱턴 DC 근교의 북버지니아 패어팩스에서 개최된다. 김대원 기자

'동성애 논란' 美 UMC, 4년간 탈퇴 교회 6천 개 넘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연합감리회(UMC)에서 지난 4년간 6천 개 이상의 회원 교회가 공식 탈퇴했다.

6월 29일 UM뉴스에 따르면, 탈퇴 승인을 받은 UMC 교회의 수는 이날 오전 현재 6,182개로, 6월 마지막 주 초 6천 개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2019년 이후 UMC에서 탈퇴한 모든 교회를 포함한 것으로, 2022년에 1,800개 이상, 2023년 상반기에 4,000개 이상이 각각 탈퇴했다.

UM뉴스의 집계는 지난해와 올해 미국 연례회의 보고서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널 및 특별연례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UM뉴스는 "교단의 재정 기관인 총회 재무행정협의회가 교회 탈퇴와 폐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재정 기관이 파악한 탈퇴 건수는 UM뉴스의 데이터보다 뒤쳐져 있다. 재정 기관이 이를 파악하려면 연회가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UMC에서 탈퇴 승인을 받은 교회의 수는 6월 초 5천 개를 넘어섰다.

6월 28일 UMC 미시시피연회는 189개 교회의 탈퇴를 승인하기로 했으며, 이는 이 연회 회원 교회의 5분의 1이 조금 넘는 수다.

샤르마 루이스 미시시피 감독은 탈퇴 승

인 투표 후 "총회에서 이번 탈퇴 절차는 지역 기구에 힘든 과정"이라며 "모두가 남길 원한다. 그러나 성직자, 평신도, 신앙 공동체가 다음 단계를 위해 기도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긴장했다. 이곳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원했다"고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UMC는 동성결합에 대한 축복과,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에 대한 안수를 금지하는 장정을 변경할지 여부를 토론했다.

총회에서 장정을 변경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실패했으나, 친동성애 측에서는 종종 장

정 시행 및 준수를 거부했다. 특히 UMC 서부지역 총회 캘리포니아퍼시픽연회의 세드릭 D. 브릿지포스(Cedrick D. Bridgeforth) 목사는 동성결혼을 했지만 지난해 투표를 통해 감독으로 선출됐다.

이렇게 일부 지도자들이 장정을 무시하자 보수적인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기 시작했다.

2019년 UMC 총회 특별세션에서 총대들은 장정에 2553항을 추가하기로 해, 오랜 논쟁 끝에 교회가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이 과정은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많은 교회들이 UMC에 대한 보수적 대안으로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감리교회(GMC)에 합류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태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기독교 박물관 설립용 유물(遺物) 매도함

● 용도
 1) 독립 박물관 : 상설전시와 순환,임시전시
 2) 부속 박물관 : 교회, 학회,단체,개인 등 부속기관으로 연구및 교육과 전시 목적을 위해 작은 공간 전시
 3) 하우스 뮤지엄 :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소규모 전시를 하며 지역사회 명소로 문화적 가치 창출
 4) 모빌 뮤지엄 :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하며 이동식 트레일러, 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5) 북 카페 뮤지엄 : 책과 커피 문화를 접목시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포함 전시
 6) 기념관 및 도서관 : 유물과 교역자의 자료를 포함하여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교회 역사와 활동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7) 온라인 박물관과 온라인 교회 :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박물관과 예배에 기회를 제공

● 자료
 유물 : 320점(Artifact: 320 points)

● 대표유물
 최초 언문성경전서,사해사본복제판(희귀본), 바로크 수태고지 자수가구, 골드 Miniature-Bible, 등 다수

● 포함
 유물 연구자료 컨설팅(일부)

● 관리자 혜택
 비자,영주권 이민 변호사 상담필수

연락처 : 1-(917)656-2626
E-mail : museum@mobw.com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새벽 기도

어두움이 가지지 않은 새벽
당신이 공기를 들어 마실때에
당신은 저를 느끼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
당신을 만나로 온 이유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예요
-글:사진: 마가렛 강-



김은주 교수 <탈진을 긍정하라> 출판 기념회 성료

김은주 교수가 집필한 <탈진을 긍정하라>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3일(월) 오전 10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 멀티룸에서 열렸다.

이번에 출간된 <탈진을 긍정하라>는 탈진이 지닌 의미를 선교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그리고 탈진을 미리 예방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상황을 진단하고 회복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쓴 가이드북이다.

출판기념회는 미주장신 이상명 총장의 환영사와 김은주 교수의 작가 인사말로 시작하여 미주장신 박선기 객원교수와 김병학 교수, ANC 온누리교회의 아모스 박 목사의 서평이 있었다.

이후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김은주 교수는 “<탈진을 긍정하라>를 통해 탈진이 가진 성경적, 심리학적,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살피는데 주안을 두었고 탈진은 나를 성찰,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



©김은주 교수 <탈진을 긍정하라> 출판기념회

명했다.

김은주 교수는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역 경험을 하였고, 선교사의 경험을 가진 미주장신 선교학 교수이다. <탈진을 긍정

하라>는 한국 CLC(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간되었으며 미주에 있는 기독교 서점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토마스맹 기자

청년 예배자 위한 연합 수련회 열린다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오는 7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청년 예배자 연합 수련회>를 가진다.

원하트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제공하고자, 일반교회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부담 없이 청년들을 보낼 수 있는 연합수련회를 기획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예배와 삶을 연결하다’로, 예배 그 자체가 주제가 되어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컨퍼런스형 수련회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전문 강사들과 함께 주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의 설교자로는 시애틀 형제

교회 바셀 캠퍼스 총괄목사인 남현수 목사가 남가주 청년들을 섬기고, 원하트 워십의 찬양으로 열정적인 청년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특히, 수련회의 저녁집회는 예배를 사모하는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오픈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하트 미니스트리 홈페이지(www.oneheartusa.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등록비용은 작은 교회 청년 \$40, 일반교회 청년 \$120이며, 청년 10명 이상의 단체등록일 경우 \$90로 책정되었다. 비용에는 수련회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 식사와 숙소가 포함된다. 아울러, 이번 수련회는 성도들의 매칭 후원을 통해 진행된다.

작은 교회 청년의 등록비용을 과격적으

로 \$40 볼로 책정하여 교회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나머지 \$80의 등록비는 후원 매칭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80의 후원을 통해 한 청년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후원을 위해서는

원하트 홈페이지(www.oneheart-usa.com)에 방문하여 후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에서는 이 수련회를 통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로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다음세대의 연합을 꿈꾸고 있다. 청년 예배자 연합 수련회 등록 및 자세한 정보는 (www.oneheartus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13.347.5080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주디 기자

美 대법원 “종교적 신념 따라 동성커플 웹사이트 제작 거부 가능”

미국 대법원이 동성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하는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30일 ‘303 크리에이티브 LLC 대 엘리시스’(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 관련 판결에서 303 크리에이티브의 로리 스미스에게 주 민권법에 따라 그녀의 종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법관 9명 중 6

명이 스미스의 편을 들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다수 의견과는 반대편에 섰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관장과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버렛 대법관과 함께 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어떤 공공 시설 범안도 헌법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라며 스미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주 당국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콜로라도주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



로리 스미스. ©ADF

는 주제가 고객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경우 기본 메시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모든 주문을 수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정부는 다른 남성과 결혼한 남성 웹사이트 디자이너에게 동성혼을 반대하는 조직을 위한 웹사이트 디자인을 강요할 수 있다... 우리의 선례가 인정하듯이, 수정헌법 제1조는 그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제7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장애인 신학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현대 사회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이론들을 전통있는 신학교 교수님들과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신 분들을 모셔서 함께 성경적으로 건강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재서 교수
총신 교수/총장 역임, 현 세계밀알협회 총재
• 강의 주제: 성경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I
성경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II

정승원 교수
총신 교수/부총장 역임, 현 세계밀알협회 이사
• 강의 주제: 하나님 나라 중언으로서의 장애인
지적 장애인의 구원은 가능한가?

김정기 목사
현 북가주 밀알선교단 단장
• 강의 주제: 하나님 나라와 장애인 선교

장영준 목사
현 시애틀 밀알선교단 단장, 미주밀알선교단 부총단장
• 강의 주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장애인 사역

- 일시: 7월 14일(금) 저녁 7시 30분-9시 30분(2강좌)
7월 15일(토) 오전 6시-오후 12시(4강좌 및 Q&A)
• 장소: 베델교회 본당

“우리 모두 직장선교 위해 부름받은 ‘직장선교사’”

한직선·직선대·미주장신대 ‘직장선교사’ 첫 공동 임명 및 파송

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와 한국 직장선교대학(직선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미주장신대)가 7월 1일 ‘직장선교사’를 최초로 공동 임명 및 파송했다.

1일 서울 종로 종교교회 7층에서 열린 ‘직장선교사 임명 및 파송 감사예배’에서는 김대수, 김상현, 김은정, 박명자, 이강목, 이상무, 이인순, 하순혜 씨 등 8명의 직장선교사가 공식 임명됐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평신도 사역의 역군으로서, 각자 달란트로 직장 동료들을 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임명된 직장선교사들은 직선대에서 훈련 과정을 마치고 헌신해 온 간사 및 사역자들로, 2020년 7월 직선대와 미주장신대의 사역협약(MOU) 이후 2021년 2월부터 미주장신대에서 선교학 석사과정을 시작해 2023년 6월까지 5학기 과정을 마치고, 지난 6월 3일 졸업한 이들이다. 직장선교사들은 앞으로 직장 혹은 교회에서 직장선교 사역자 육성을 위한 전도, 양육, 훈련 사역에 집중하고, 해외 직장선교 현장으로도 파송될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전임 직장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다.

직선대 사역본부장 김영수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한직선 총괄본부장 국응생 장



임명 및 파송을 받은 직장선교사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로의 기도 후 한국기독교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직목협) 대표회장 손운탁 목사가 ‘선교사의 길’(행 16:6~10)을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손 목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고, 주 안에서 큰 영광을 돌리는 직장선교사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직장선교대학이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분을 따르는 성경적인 선교 훈련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곧 선교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길에 매진함으로 주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직장선교사 임명 및 파송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준비해 온 직선대 대표학장 이재웅 목사는 “그동안 직선대에서 많은 분

이 훈련받고 간사로 임명받아 사역해 오셨다”라며 “물론 간사로 사역할 수 있겠지만, 직장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사역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직장선교사의 직분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로운 직분”이라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도 나를 직장선교사로 부를 때 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재웅 목사는 특히 “오늘 직장선교사 임명 및 파송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직장선교 현장에서 ‘직장선교사’

로 저를 소개하고, 저를 부르실 때도 ‘직장선교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오늘 직장선교사 임명과 파송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장선교 현장에서 직장선교하시는 모든 분은 다 직장선교사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모두 직장선교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한직선, 직선대, 미주장신대 3개 기관 공동으로 8명에게 직장선교사 임명 및 파송장을 수여했다. 또 직선대 모든 간사도 앞으로 ‘직장선교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로 하고, 대표로 안재승 간사에게 직장선교사 임명장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미주장신대 총장 이상명 목사는 온라인 zoom을 통해 “포스트 모던 사상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급변과 더불어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다양한 도전과 격변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할 때 직선대가 한국교회의 미래와 세계선교의 미래를 밝힐 선교를 보다 힘차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임명되신 여덟 분은 직장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권면을 전했다. 또 “미주장신대는 파송 받으신 직장선교사분들은 물론 직선대와 든든한 동역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교회...고학력·기혼·중산층 가정 중심으로 전환”

정치학자이자 미국침례교회 평신도 설교자인 라이언 버지(Ryan Burge) 교수에 따르면, 미국 교회는 자녀가 있는 고학력 기혼 중산층 가정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버지 부교수의 연구 결과는 교육, 소득 및 관계 상태와 같은 척도를 분석하는 데이터의 최근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이 데이터는 47만7천명의 응답을 포함하는 네이션스케이프 설문조사와 ‘유고브’(YouGov)에서 관리하는 5만명 이상의 전국 계층화 샘플 설문조사인 ‘협동 선거 조사’(Cooperative Election Study)와 같은 연구에서 파생된다.

버지 교수는 “점점 더 종교는 ‘적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영토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무시하기 어렵고 미국 사회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중요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대학 학위, 중산층 소득, 자녀가 있는 기혼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 비

율의 약 두 배”라고 했다.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소속을 가진 그룹은 석사 학위를 가진 이들”이라면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종교적 소속이 증가한다고 주목했다.

버지 교수는 미국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배를 참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난한 이도 부유한 이도 아니다. 대신 소득 분배의 중간에 있는 이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이번 주말 예배를 참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들은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로 수입은 6만~10만 달러다. 즉, 중산층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버지 교수는 교회가 중산층 거주지로 발전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할 때 교회를 배타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된 신



©pixabay

앙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종교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곳이다. 불행히도, 미국의 종교는 최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되었다. 모든 것을 ‘올바른’ 일을 한 사람들을 위한 반항심이 되었다. 즉,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병원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회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내러티브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도 않았다”라고 했다.

한편, CP에 따르면 수년에 걸친 많은 연구는 변화하는 문화적 규범과 경제가 결혼 및 동거를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결혼은 건강 결과, 수명 및 경제적 안정 면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립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결혼률이 어떻게 100년 이상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는지 보여준다.

‘The Coming Divorce Decline’의 저자인 메릴랜드 대학 사회학 교수인 필립 코헨은 “결혼이 원래 의도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더 지위의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헨은 “이혼에 대한 태도가 관용화되고 동거가 덜 안정적이면서도 결혼은 점점 더 선택적이고 안정적이 되고 있다”라며 “미국은 과거보다 결혼이 더 드물고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점점 더 중심적인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CT 촬영(뇌, 폐 선택)
- 수면 대장내시경
- 중앙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수면 위내시경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故 주식중 교수의 생전 기도 “모든 치료는 주님 손에”

노환규 전 대한사협회 회장이 최근 교통 사고로 별세한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 외과 故 주식중 교수의 아들 주현영 씨가 보낸 장문의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게시했다.

국내 대동맥박리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진 故 주식중 교수는 주님의교회 집사로 봉직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아들 주현영 씨는 故 주식중 교수 연구실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주 교수가 쓴 신앙고백을 발견하고 오 열했다고 한다.

주현영 씨는 노환규 전 회장에 보낸 편지에서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러 연구실에 갔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서류들 속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만년필도 직접 쓴 몇 개의 기도문이 있었다. 벽에 있는 작은 게시판에도 기도문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영문으로 쓴 그 기도문 한 구절은 이렇다”고 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

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그렇게 적어두신 듯하다”고 했다.

주 씨는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첫날 평평 울면서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대동맥 박리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어려운 수술이라며 모두들 기피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집도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노라며,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떡하겠나’,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무슨 대수냐’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머니께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 많은 환자들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故 주식중 교수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스프가 널려 있었다”며 “제대로 식사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서, 아니면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연구실 건너 의국에서 생라면을 가져와 면만 부워 드시고 스프는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환자 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당신 몸은 돌보지 않던 평소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져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했다.

주 씨는 과묵하나 마음이 따뜻한 故 주식중 교수의 생전 진심을 전했다. 주 씨는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힘들고 긴장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심장 수술에 정성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이들에게 늘 고마워하셨다”며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데 능한 분이 아니셔서 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지지 못했다면 이렇게나마 아버지의 뜻을 전해 드리고 싶다”고 했다.

주 씨는 끝으로 “많은 분들에게서 저희 아버지를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가슴을 지닌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가슴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절반만이라도 아버지처럼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환규 기자

김동호 목사

“이중직 찬성하나...이재철 목사 발언 속고해야”

암투병 중인 김동호 목사(사단법인 피피엘 대표)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최근 이재철 목사가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 발언한 내용의 진의를 속고해야 한다고 “이중직을 포기하는 목회자도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목사는 “막내가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서 전임 자리를 찾고 있었다. 이력서를 써서 이곳, 저곳 지원을 했지만 한 곳도 되는 곳이 없었다”며 막내에게 이중직을 권했다. 그는 “신문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도 해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교회를 시작해. 교인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시작해. 미자립교회는 없어. 미자립 목사가 있을 뿐이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교회야”라고 했다고 한다.

김 목사는 “한 번 퇴짜 맞았던 교회에서 다시 불러줘서 신문 배달은 안 했지만, 아마 정말로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은 틀림없이 신문을 돌렸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난 내 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애가 없었다면, 그냥 목회 한 우물만 파라고 권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남편으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밥을 굶는 건 관중지만 목사라고 아내 밥 굶기고, 자식 밥 굶기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나는 목사가 교회가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교회도 목사가 교회가 주는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게 책임져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교회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아니라,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해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그런 경우 목사가 스스로 이중직을 수행하면서까지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목사의 이중직이 무슨 목회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중직 목회의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는 점점 쇠약해져가고 있다. 교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감당치 못할 교회는 점점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 목회자 없이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할까? 이중직을 하면서도 교회를 지켜주는 목사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설령 이중직을 결심하고 결정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결정하고 결심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속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목사님의 말씀을 속고하다가 이중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제4차 로잔대회, ‘전문인’ 중심... ‘차세대 리더’ 에도 최대한 기회

전 세계에서 참가 신청한 3만 5천 명 중 최종 1만 명 선정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전문인과 차세대 리더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유기성 목사, 이하 준비위)는 지난 한 달간의 대회 준비 과정을 6월 29일 보고했다.

먼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인천온누리교회에서 국제로잔이사회가 열렸다. 국제로잔위원회 총재 마이클 오(Michael Oh) 목사를 비롯해 국제이사 13명이 현장을 찾고, 5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제4차 대회의 참가자 선정, 프로그램 준비 현황 보고, 이슈네트워크 구성, 대회 장소인 송도컨벤시아 현장 점검 등을 진행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제4차 로잔대회에 추천을 받아 신청한 참가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 총 3만 5천 명이다. 이 중 선정된 5천 명은 현장에서, 5천 명은 온라인(Virtual)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가

자 역시 현장 참가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온라인 소그룹으로 나뉘어 일주일간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 선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는 전문인 그룹(workplace group)이 전체 참가자의 40%가 되도록 선정된 것이며, 다음으로 40세 이하 젊은이 그룹에게 최대한 참여 기회를 얻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4차 로잔대회부터는 모든 참가자에게 6개월 전에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가 배부돼, 세계 선교 현황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4차 로잔대회의 준비와 기획, 프로그램에는 ‘사도행전’ 말씀이 강력하게 적용된다. 대회의 오전 세션에는 사도행전 강해를 중심으로 현대 선교의 주제들을 다루며, 오후 세션은 25개의 이슈트랙(Issue Network)들로, 저녁 세션은 세계교회로부터 배우는 교훈들로 구성된다고 이사회는 밝혔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박사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한국 현장 예배 '57%→68%→74%' 참석률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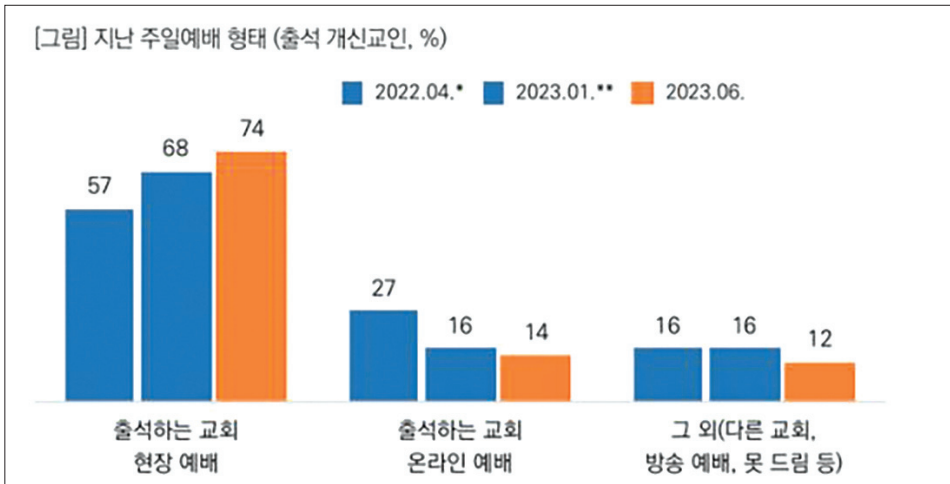
지앤컴리서치 1천 명 설문 결과

지난 주일예배를 교회 현장에서 드렸다고 답한 비율이 지난해 4월 57%, 올해 1월 68%, 그리고 6월 설문에서 74%로 조사돼 현장 예배 참석률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주)지앤컴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개신교인의 온라인 사역 인식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4%가 지난 주일예배를 출석하는 교회에서 드렸다고 답했다. 이를 과거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현장 예배 참석률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가 추세였다. 코로나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반대로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4월 27%, 올해 1월 16%, 그리고 이번에 14%로 조사돼 감소 추세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향후 온라인 주일예배를 얼마나 드릴 것 같은지'를 물었을 때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고, '현재보다 적어질 것'이 29%로 뒤를 이었다. '현재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11%에 불과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온라인 예배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다.

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 유형에 대해서는 65%가 '대면'을 꼽아 가장 많았다. '대면/비대면 둘 다'는 29%였고, '비대면'은 6%에 그쳤다. 대면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를 과거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면'을 꼽은 비율은 지난해 4월의 47%에서

18%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대면/비대면 둘 다'는 43%에서 29%로 14% 포인트 감소했고, '비대면'은 대동소이했다.

또 새가족 환영, 공동체 형성, 교회학교, 예배 등 10가지 교회 사역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 대면 혹은 온라인 사역 적절성 여부를 묻은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예배'에 있어서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가 61%, '온라인으로도 무방하다'가 36%였다.

소그룹 참석자들에게 소그룹 운영 형태를 물었을 때 '오프라인' 59%,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되, 가끔 온라인 활용' 25%로 대부분(84%)의 소그룹 활동은 대면 모임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심으로 하되, 가끔 오프라인으로 모임'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비율은 각각 9%, 8%에 그쳤다.

한편, '온라인 예배도 주일성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72%로 높았다. 또한 이는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2천 명 이상 대형교회 교인들일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81%였다.

김진영 기자

이재철 목사 이중직 발언 논란, "메시지 본질 봐야" 주장도



이재철 목사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중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물뎀동산교회 유튜브 채널

최근 이재철 목사(전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담임)가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밝힌 '이중직' 관련 발언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중직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목사 메시지의 본질을 바로 보자는 의견들도 눈에 띈다. 즉 그의 메시지 본질은 "이중직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목사의 본질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편중해 접근하기에 이재철 목사의 현존하는 미래들(젊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진심어린 충고와 바람이 퇴색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재철 목사는 목회자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강조한 것이다. 이중직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의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다른 한 네티즌은 "이재철 목사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라 여러 번 설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중직을 갖는다고 누구도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진다면 목회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재철 목사는 목회자는 성도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며 사도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함을 다음세대 젊은 목회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며 "이중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나, 혹은 혹은 목회의 본질, 또는 무게중심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신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중직에 있는 목회자들의 댓글도 보인다. 한 네티즌은 "저도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다. 저는 이재철 목사의 심증이 이해가 된다. 제가 들기론 이중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라고 들린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지금과 같은 부딪힘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코로나 때 교회개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리잡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조그만 상가 교회 임대해서 감사하며 사역하고 있다. 인생에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했고 힘든 일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지금 이중직 하는 이유는 교회 월세라도 내가 낸다는 마음이 크다. 이중직이라고 해서 목회에 전념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교역자 때보다 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틈나는 대로 전도도 한다. 저는 임시 이중직이라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라고 했다.

그러나 "이중직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이재철 목사의 메시지는 자칫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 기준이 되어 경각심을 갖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재철 목사님 영상을 보고 이중직에 대해 저는 목회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들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내지는, '원리-현실 차이'라는 관점도 보인다. 한 네티즌은 "이중직 하면서도 목양을 잘하시는 목사님(선교사님)도 있을 수 있고 목회만 하면서도 영망진장인 분들도 있다"며 "이재철 목사님은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성도를 얼마나 잘 목양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깨어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이어 "목사님들마다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에 정답은 없는 듯하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목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현생은 힘들고 고달퍼도 그 아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다른 한 네티즌은 "찬반의 입장이 모두 동의 된다. 원칙과 현실의 차이 아닐까"라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이재철 목사는 원칙을 말한 것이고 상황과 현실은 얼마든지 예외도 있다. 폭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면 많은 도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진 기자

'역도 전설' 장미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발탁돼

살아 있는 역도의 전설 장미란(40)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깜짝 발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장관급 인사안을 통해 알려졌다.

장미란 교수는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2005년부터 3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정상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합계 326kg을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함께 시상대에 올랐던 은메달리스트 올라코보브카(우크라이나)와 동메달리스트 마리아 그라보베츠카야(카자흐스탄)는 이후 금지 약물 양성반응이 확인돼 메달이 박탈됐다. 2009년 고양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후 타고 있던 승용차가 뒤를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광저우아시아게임에서 투혼의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장미란 교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부터는 생각하고 되돌아 볼수록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낀다. 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본인도 너무 귀한 존재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2012년 '장미란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공식 은퇴했다.

후배 양성고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그녀는 장미란재단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나 스포츠 꿈나무를 후원하고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거쳐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김신의 기자

美 전 연방 상하원 의원들,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예배

이영훈 목사 "한미동맹 확고히 하며 복음통일 위해 기도하자"

방한 중인 미국 전직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모임인 미국전직연방국회의원협회(FMC, Former Members of Congress) 회원 8명과 가족 등 12명이 28일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수요일예배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한미 양국의 우호진전을 위해 기도했다.

이영훈 목사는 "올해는 특히 한국전쟁 발발 73주년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 해인 데다 한반도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면서 "한미동맹을 더 확고히 하면서 남북이 화해와 용서로 복음통일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FMC 회원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셰리 부스토스(Cheri Bustos) 전 의원은 "베풀어주신 환대와 호의에 감사한다"면서 "방한 기간 동안 우리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즉 무역, 경제성장, 한반도 평화와 세계 안보 등에 대해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이 모든 일의 핵심인 양국의 평화와 상호존중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는 이 외에도 피트 와이클린 FMC 회장 부부,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이자 사단법인 김창준한미연구원 이사장 부부, 팀 허친슨 전 연방상원의원, 커트 슈레이더 전 연방하원의원, 톰 그레이브스 전 연방하원의원, 제프 덴햄 전 연방하원의원, 링컨 데이비



미국전직연방국회의원협회 회원들이 2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일예배에 참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스 전 연방하원의원과 가족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방한기간인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

동경비구역(JSA)을 비롯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유버전’, 인터넷 필요 없는 ‘라이트 성경 앱’ 출시

인터넷 접근 어려운 지역 기독교인들 위해

모바일 성경 앱 ‘유버전’이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는 ‘라이트 버전’을 출시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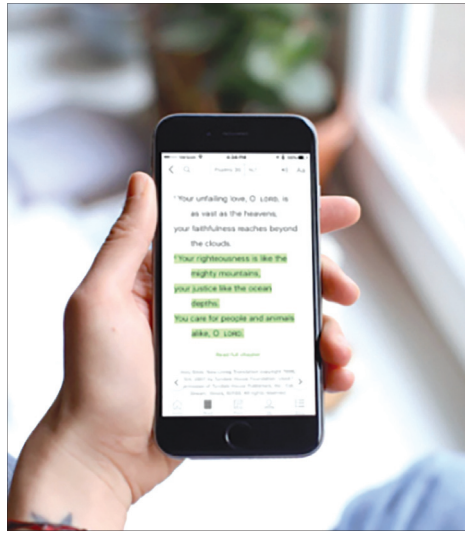
CBN뉴스에 따르면, 유버전 성경 앱의 라이트 버전은 휴대전화의 저장 공간을 가볍게 유지하면서 오디오 성경, 오늘의 성구, 기도 등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앱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사용자들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이 앱이 만

들어진 후 400만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 중이며, 아프리카 17개국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10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버전은 글로벌 성경 사역단체인 비블리카(Biblica)와 협력해 이 앱을 제작했다.

비블리카 마크 핀젤(Mark Finzel) 부사장은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상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앱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는지, 안정적인 휴대전화 네트워크가 있는지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디지털 혁신은 현실이 아니며, 인터넷 속도와 비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고 했다.



유버전 성경앱. ©Life.Church

아프리카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지만, 유버전 앱은 이곳의 기독교인들이 인터넷 없이도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버전이 출시한 라이트 성경 앱은 인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에서도 출시됐다.

유버전 설립자인 바비 그룬왈드(Bobby Gruenewald)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며 “이 새로운 앱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수천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성경 재현한 美 비디오게임, 크라우드펀딩서 27만불 모아

신약성경의 이야기를 재현한 신작 비디오 게임 ‘게이트 제로’(Gate Zero)가 크라우드펀딩에서 3억5천만원(27만1천달러) 이상을 모금하며 게임 유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유저는 25억 명에 달한다. 게이트 제로의 개발자들은 “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디지털 시대와 성경 이야기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도구”라고 소개했다.

게이트 제로의 프로듀서 중 한 명인 아르베 솔리는 CBN 페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경의 이야기와 사건에 익숙해지게 할 게임을 만드는 데 뛰어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게임을 “일부 플레이어들에게 대화형 성경으로 구성되었고, 아마도 그들이 읽게 될 유일한 성경이 될 수도 있다”며 “플레이어들을 과거로 되돌려서 성경의 풍부한 이야기와 사건에 몰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이트 제로는 2020년 기독교 청소년 캠프를 위한 대화형 성경 공부 개념에서 착안되었다. 그러나 그해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솔리와 그의 개발 팀은 이 개념을 본격적인 비디오 게임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솔리는 “컨셉 개발과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3인 팀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에 우리는 거대한 초기 버전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게임은 풍부한 이야기를 담은 어드벤처 게임으로, 유저들을 1세기경 이스라엘 시대로 안내한다. 게임 제작팀에 따르면 플레이어는 복음서 이야기와 교감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할 기회를 가진다.

이 팀은 미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회사인 킥스타터(Kickstarter)에 “게임 개발에 열정을 가진 팀으로서, 게임이라는 강력한 매체와 오늘날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교육하며, 영감을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게임은 2072년 미래 세계에서 시작되며, 시간 여행을 모티브로 하여 플레이어를 성경 시대로 데려간다. 플레이어는 주인공이 되어,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받은 신비한 진주의 비밀을 해독하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과거로의 여행은 게이트 제로라는 시간 여행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게임은 현재 20분짜리 데모 버전이 제공되고 있으며, 완성 버전은 2024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모금액은 게임 개발 단계를 완료하

는데 사용된다.

인디애나주 그레이스대학 교수 겸 포지티브 임팩트의 부사장인 스티브 밴미터 부목사(오하이오주 그레이스 교회)를 비롯한 지지자들은 게이트 제로가 청년들을 신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밴미터

는 킥스타터에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도구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유진 기자



성경의 이야기를 재현한 비디오 게임 ‘게이트 제로’ ©게이트 제로

美 매릴랜드 교회, 십자가 철거 및 성경 훼손당해... 증오 범죄 추정

피해액 1억 3천만 원 상당

미국 메릴랜드 한 교회에서 대형 십자가가 철거되고 성경이 훼손되는 등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달 초 아나폴리스에 소재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인 파울러연합감리교회(UMC)가 이러한 공격을 받았다.

이 교회 제롬 존슨 담임목사는 아나폴리스 현지 언론인 캐피탈 가제트(Capital Gazette)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증오를 느끼는 장소로 더럽혀졌다”며 “그것은 내 영혼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게였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의 고통, 그리고 누군가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앤 아룬델 카운티 경찰은 이를 잠재적인 증오 범죄로 간주하고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6월 9일 기물 파손 사실을 통보받았다. 성소 벽에 부착돼 있던 큰 십자가는 철거돼 신도석에 던져졌다.

또 교회 소유의 성경과 찬송가에서 수백 페이지가 찢긴 채로 성전 바닥에 던져졌다. 음향기기 코드는 끊기고, 텔레비전 5대



기물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파울러연합감리교회(UMC). ©파울러 연합감리교회

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울러연합감리교회는 페이스북에 기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시했다.

지난 4월 발표된 가족연구위원회(FRC)의 아리엘 델 투르코(Arielle Del Turc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교회에 대한 공격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 1분기에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3년 첫 3개월 동안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2023년 월드미션대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가을학기 온라인 입학설명회
2023. 7.14(금) 5PM

학위과정별 전공	
준학사과정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과정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신학 전공, 음악학 전공, 예배학 전공, 상담코칭 전공
박사과정	목회학, 음악연주학, 실천신학(영성과 상담코칭, 종교와 문화)
수료과정	유아교육, 비영리단체사역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muinfo@wmu.edu | www.wmu.edu

가을학기
온라인 입학설명회
신청QR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차세대) 오전 9:15(새벽)에 월요일(07)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토-일) - 헌정성경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ken 교회)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통예배 오전 9:00 아로사(ANS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월간예배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아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초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한글학교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강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강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강부 오후 7:00(금)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gwgm.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일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kv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니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돕스 판결’ 후 태아 9만4천여 명 구했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 판결로부터 1년 동안 9만4천여 명 이상의 태아 생명이 구해졌다고 미국 baptist프레스(BP)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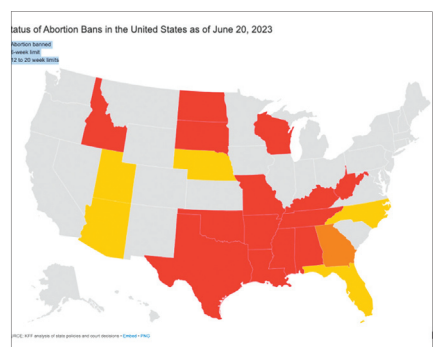
미국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의 브렌트 레더우드 회장은 24일 돕스 판결 기념일에 BP와 가진 인터뷰에서 “1년 전, 우리는 친생명(pro-life) 운동의 진정한 전환점을 목격했다. 더욱 많은 생명과 산모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더 많은 가족들이 표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돕스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원이 필요한 여성과 가족을 섬기기 위해 많은 친생명적 개인, 사역 및 조직이 성장하고 확장되었다”며 “로 대 웨이드로 인한 수십 년의 죽음 이후, 미국에 새롭고 활기찬 생명의 문화가 확립되고 있다. 이는 축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레더우드는 “그러나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다. 낙태 제공자와 약물 제조 사업이 낙태 지역에서 취약한 산모와 가족들을 노리고 있다”며 “우리는 임신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까지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보호하고 강력히 수호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너무나 많은 생명이 여전히 취약하며, 친생명 운동은 계속해서 이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돕스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태아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KFF)에 따르면, 2023년 6월 20일 기준으로 14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 중의 대부분이 바이블 벨트(Bible belt) 지역에 속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머지 주에서는 여전히 낙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2개 주는 임신 6주에서 12주 사이로 제한하고 있다. 9개 주는 임신 15주에서 22주 사이로 제한하며, 25개 주와 워싱턴 DC는 산모의 마지막 월경 이후 22주 이상이 지난 후에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지도 상에서 빨간색은 낙태 전면 금지, 주황색은 임신 6주 이후, 노란색은 임신 12주에서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주를 나타낸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또한 미국 내 최소 4개 낙태 시술소에서 임신 5개월 이후에도 낙태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KFF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거트마처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자료를 인용하여 돕스 판결 이후 낙태 건수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미국에서의 낙태율은 미주리주의 여성 1천명당 0.1건부터 워싱턴 DC의 48.9건까지 다양한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돕스 판결 이전에도 낙태 시술에 제한이 있는 주에서는 낙태율이 급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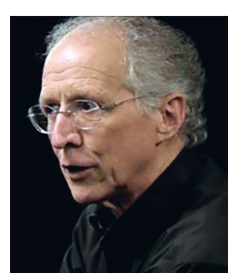
돕스 판결 이후 6개월 동안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주에서는 매일 10건 미만의 낙태가 관측되었다. 이 자료는 KFF가 가족계획협회(SFP)의 위카운트(#We-Count)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낙태율을 기록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아이다호, 캔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이다.

진료소에서 시행된 낙태 건수는 돕스 판결보다 2개월 앞선 2022년 4월에 8만 2450건으로 시작하여, 돕스 판결 6개월 뒤인 2022년에는 12월 8만600건으로 감소했다.

김유진 기자

존 파이퍼 “선교단체 내 여성 목사, 성경에 위배”

“문화적·사회적 압박으로 하나님의 질서 거부하는 것”



존 파이퍼 목사. ⓒDesiringGod.org

신학자이자 작가인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가 최근 “여성 목사 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이 선교단체 등에서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리를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존 파이퍼 목사는 지난 26일 ‘디자이어링 갓’(Desiring God) 웹사이트의 팟캐스트 코너인 ‘존 목사에게 물어 보세요’에서 한 청취자가 선교단체 사역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청취자는 “저는 잘 알려진 글로벌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우리 리더십은 조직 내 모든 리더십 직책을 여성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캠퍼스 리더십, 지역 리더십, 국가 리더십 등이 포함된다”며 “이전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리는 남성에게만 국한됐었다. 이러한 변경 이유는,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러한(여성 리더십)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파이퍼 목사는 “사역 단체의 결정이 슬펐다”며 “문화적·사회적 압박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차이를 거부하는 예라고 생각한다. 문화 전체가 거부 쪽으로 자유낙하고 있다. 여기서 아무도 낙하산을 타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증거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연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구별되지 않은 성역할의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바보로 여겨질 뿐 아니라 부당한 처우나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별을 평준화하는 평등주의적 충동은 우리 문화의 모든 수준에서 대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2-14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 아담이 죄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죄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말씀을 인용했다.

파이퍼는 “바울은 타락 이전 태초부터 창조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에서 인간이 리더십과 보살핌의 부담을 져야 하는 독특한 책임을 보았다”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원래의 창조가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지침을 주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교회나 가정에 제한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많은 것들 중 하나의 적용이었다”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선교단체의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여성을 정기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남성을 이끄는 자리에 두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참된 모습과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가르쳤고, 모세가 가르쳤고, 자연이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이퍼 목사의 이러한 발언은 남침례회(SBC)가 여성이 목사직을 맡도록 허용한 교회들을 제명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이후에 나왔다.

이달 초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SBC 총회에서 총대들은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새들백교회와 캔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핀크리치레교회의 제명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또한 여성이 ‘그 어떤 종류의 목회자’로도 봉사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개정안을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 플라니족, 기독교인 150명 이상 학살...목사 3명 사망

나이지리아 플라토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플라니족의 공격으로 6월 첫 3주 동안 교회 목회자를 포함한 15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학살당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바킨 라디 군의 가나롬에 위치한 그리스도 열방교회(COCIN)의 니코드무스 킴 목사가 사망했다. 이로 인해 이번 달 플라토 주에서만 목회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토 주지사인 케일럽 마나세 무트팜은 지난 주의 사건에 대해 “보수적으로 말해도, 지난 3주 동안에 최소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구 지방 정부 지역에 묻혀야 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처리해야 하는 다른 국내 난민(IDP) 캠프에 흩어져 있는 최소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제외 한 숫자”라고 밝혔다.

망구, 바킨 라디, 리움 군의 주민들은 테러범들이 6월 첫 3주 동안 COCIN 예배 건물을 비롯해, 기독교인 소유의 가옥 수십 채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6월 20일 이 세 지역을 공격하여 주로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보위와 치슈에서 15명을 살해했다.

지역 주민인 밤삭 이사야는 모닝스타뉴스에 문자 메시지로 “마을을 공격한 자들은 무슬림 신자인 플라니 목동들이다. 그들은 밤 11시경,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보위와 치슈 마을을 공격했다”며 “목동들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COCIN 교회 예배당과 보위의 COCIN 지역 위원회 사무실까지도 불태웠다. 목동들의 방화로 인해 일부 신자들은 집에서 산 채로 불에 타 숨졌다”고 했다.

망구 지방 정부 위원회 소속인 마르쿠스 아르투 의원과 플라토 주의회의 바라

프왕제 의원이 이번 공격에 대한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프왕제 의원은 “망구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테러범들은 망구 주변 지역사회에 대다수에서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살해하고 있다”면서 “이 공격은 6월 20일 보위에서 시작되어 망구시와 사본가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지역 주민인 크로스토퍼 팸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경 리움 군의 라호스삼박 마을에서는 플라니 목동들의 매복 공격으로 인해 6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다. 당시 이들은 사고 사망자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도중에 습격을 당했다.

지난 18일 바킨 라디 군에서는 목동들이 기독교 주민이 다수인 카크, 라냥, 응징, 로할라, 부카 마을을 습격해 20명을 살해했다. 또한 망구 군의 망구 마을에서도 2명이 사망했다고 지역 주민들이 제보했다. 이 지역 주민인 솔로몬 달립은 바킨 라디 군에서 플라니족의 공격이 17일 밤에 라우루에서 시작되어 기독교인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혔다.

피해 지역의 지역개발협회 대변인인 르방 텐그웅에 따르면, 플라니 목동들은 지난 11일 리움과 바킨 라디 군에서 21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했다. 또한 그는 림 마을에서 2명, 졸 마을에서 7명, 크위 마을에서 11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바킨 라디 군의 가나 롬에 사는 니코드무스 킴 목사가 자택에서 목동들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미경 기자

“中, 종교 모임 시업 사전 등록 강요... 박해 우려 심화”

중국 공산당이 임의로 성경을 다시 쓰려는 시도에 이어, 최근 또 다른 종교 자유 침해에 나섰다.

CBN뉴스가 최근 “종교 집회에 참석하기 전 시민들에게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새로운 앱을 중국 공무원들이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박해 감시단체 순교자의소리(The Voice of the Martyrs)의 언론 담당자 토드 넬튼(Todd Nettleton) 박사는 CBN의 페이스아이에어에 출연해 “올 봄 허난성에서는 모든 종류의 종교 집회에 참석 승인이 필요한 앱을 출시했다. 즉 (종교 집회에 참석하려면) 휴대전화에 앱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넬튼 박사는 “종교 집회에 가려면 중국 정부에 자신이 누구인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등 모든 개인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들은 이 절차를 거친 후에야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승인을 받게 된다. 이는 당국에 등록된 교회에서만 가능하며, 가정 교회 및 기타 승인되지 않은 모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넬튼은 “정부 관계자가 교회 예배에 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꺼내 앱을 열어 보라. 미리 가입을 했는가?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라고 묻는다”고 설명했다.

종교 자유 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도 올해 초 이 앱과 관련, “스마트 종교”라고 불리며, 허난성 민족종교사무위원회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CBN뉴스는 지난 3월 “이 앱은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모스크, 불교 사원 및 기타 종교 공간에도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넬튼은 “당국은 사람들을 쉽게 특정하고 단일화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앱을 활용해 모임에 참석하기 전 자신의 정보를 작성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로 등록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야 그들을 추적하고 모임 장소를 폐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넬튼은 현재 이 앱이 허난성에서만



중국의 거리에 설치된 CCTV와 오성홍기. ©미국 오픈도어즈

활용되고 있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우 유사한 앱 기반의 규제를 지켜 봤다. 중국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녹색 체크 표시가 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앱이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잠재적으로 ‘마음의 과녁’을 그려서 시민들의 종교적 생활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넬튼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누구도 종교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되며, 사전에 등록을 마치고 서명한 성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 사항도 있다.

그는 “그들이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수를 생각할 때, 전국의 감시 카메라 수를 생각할 때, 전화기와 감시 카메라로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할 때,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수준까지 모든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CBN뉴스는 “박해 감시 기관들은 앱 요구사항이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CBN의 페이스아이어는 “중국 공산당은 보다 공산주의 친화적인 성경을 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넬튼은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2019년에 발표한 프로젝트다. 당시 그들은 새로운 성경 번역본을 발표하는 것이 약 10년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새로운 번역은 정말 공산당을 지지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월요일 예배 오전 8:00
주말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OC제물 **최혁 담임목사**
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월-토)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유치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D)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이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예배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려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강태광의 기독교 인문학 강의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미국 하와이와 본토로 진출한 조선인 교회

1900년대 초에 조선에서는 1860년대처럼 혹독한 흉년이 다시 확산되어 농민들과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해져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되었다.

그 즈음에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 최초로 미국공사관에 의사로 입국하여 갑신정변으로 인해 최초의 서양식 제증원을 1885년에 세웠고 그로인해 선교사들이 입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그는 1887년에 주미전공사의 고문인 참찬관에 임명되어 미국에 가서 청나라의 외교 간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공사 설립에 기여하였다.

1890년에는 주한미국 공사관 서기관이 되어 총영사 대리직을 지냈다. 그가 그런 재임 시절에 미국에서 하와이 농장의 관리자로 부터 조선의 노동자를 보내 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고종에게 설명함으로써 조선인들이 1901년 최초로 미국 하와이 노동자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인들이 고향과 조상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부덕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태평양 건너의 생면부지의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흉년이 극심하였기에 하와이로 가면 가족의 생계 해결과 조선같이 신분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에 설득이 되어 인천의 내리교회교인들과 평양의 기독교인들 121명이 자원하여 제 1차로 1902년 12월 22일에 제물포를 떠나 3주 만에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1905년에 일본에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빼앗기기 전까지 모두 7천 여 명이 하와이에 취업차 떠났다.

1902년 최초 일진 출국에 조선 감리교 선교회에서는 흥송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의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1903년 11월 3일에 호놀룰루에서 최초로 설립하여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평양의 장로교 출신들은 신앙노선이 맞지 않자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1906년에 평양 장대현교회 설립자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안식년차 미국으로 가던 중 하와이에 잠시 머물면서 그곳의 조선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되었으며 장로교 출신들이 교인들로부터 장로교 목사를 파송해 장로교회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마펫선교사가 미국 장로교 선부에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물론 성사는 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에서는 하와이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을 끝내면 본토로 와서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줌으로 1905년부터 1915년 동안 이를 실시하여 약 1천 여 명이 미주 대륙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와 취업지역은 유타주의 커티컷범함캐논의 구리 광산이었으며 그곳에서 노동한 조선인들이 모두 411명이나 되었다. 그들 중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미주에 남아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2세 교육을 시키며 그곳에서도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의 교회를 이끌어 갔다.

이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는 1904년에 LA에 연합감리교와 1905년에는 상향한인연합감리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되었으며 1906년에는 나성한인연합감리교회가 설립됐고 1919년에는 시카고한인감리교회, 1921년에는 뉴욕감리교회가 세워졌다. 이처럼 조선 기독교인들은 미대륙에 디아스포라를 이루며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지만 신앙과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미주 이민교회 역사가 120여 년 동안 미 전역에 약 3천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미주 한인교회는 해외선교를 일찍이 시작하면서 남미권과 공산권 선교에 한국교회보다 일찍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이 1978년 개방되면서 미국 시민권 사역자들이 공산권 선교를 일찍 개척하며 북한 동포들에게 다양한 구제와 의료봉사 사역에 기여하였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맹주로서 번성했었고 헬라철학과 헬라문학을 꽃피운 헬레니즘의 요람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출생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의 제2의 고향입니다. 아테네는 현존하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인문학적 소양이 잘 드러나는 설교(행17장)로 아테네 시민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에서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스에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아테네는 전통적으로 적절한 논리와 학문을 갖춘 방문객을 아레오파고스 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장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아테네 최고 법원의 명칭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곳이 법원인지 광장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레오파고스 법원의 초청으로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 관원 디오니시우스가 바울 설교를 듣고 신자(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아테네는 쇠락한 상태였지만 옛 영광의 흔적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신전들, 헬라문명의 발상지라는 시민의식, 그리고 당대 최고를 자부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설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아테네설교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10절입니다. 이 10절의 설교는 신약 신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본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페우는 아테네의 바울 설교를 세계 문학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구절이라 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마틴 디벨리우스 교수는 사도바울의 아테네 설교가 탁월한 헬라적 설교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의 정점(Climax)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아테네설교는 다종교 사회에서 복음증거의 모델입니다. 이 아테네설교에는 철학, 문학, 그리고 역사적 자료가 풍성합니다. 청중과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헬레니즘의 심장 '아테네'에서 헤브라이즘의 진수인 "복음"을 전한 이 설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인문학자 바울의 인문학적 설교

가 자랑하는 시인 에피메네데스 시구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1장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라는 시구도 에피메네데스의 시입니다. 바울은 유명한 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했습니다.

에피메네데스는 신적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57년 동안 동굴에서 잠이 들어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쓴 '솔론의 전기'에 의하면 에피메네데스가 솔론과 함께 아테네 개혁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작품과 행적으로 에피메네데스는 아테네 시민과 철학자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28절 후반부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We are his offspring).' 구절은 아라투스(Aratus)의 시입니다. 그는 바울의 고향 길리기가 출신의 학자요 시인입니다. 그는 "파이노메나(Phainomena)", "찬가", "에피그램" 등을 썼으나 남은 것은 제우스를 찬양한 파이노메나 뿐입니다. 아라투스는 제논의 제자인 철학자 "클리덴테스(Cleanthes)"의 글을 인용하여 이 시를 썼고, 이 시를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이 시는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애송했습니다. 바울은 당대 헬라철학자들이 애송했던 문장들로 아테네 철학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박사는 바울의 아테네 설교가 사회문화적 환경을 활용한 모범적 설교라고 주장합니다. 천주교 신학자 핏츠마이어 박사는 '아테네는 헬라문화를 품은 고품격 도시였지만 바울은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헬라문화를 활용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다소에서 헬라문화를 체득한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준비된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헬라문화의 심장부에서 순수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철학과 문학을 충분히 활용한 인문학적 설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의 문화를 존중하고, 청중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활용한 설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청중의 지성을 존중하고 그 지성을 활용하여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설교는 기독교 인문학 설교의 모범입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총회원. 기독교대학(원), 목회학(원), 신학(원), 상담학(원), 선교학(원),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1626(227)-3454.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국기독교총회(AMB) 후원.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온오프라인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실시간 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박사급 지원 (Col & Pell Grants).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오프라인 및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The 4th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Dallas 2023

Revival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특별게스트

브라이언 김_찬양선교사



송 솔나무_플루티스트

“오전과 오후는 통일전문강사들의 열린 강의로, 저녁은 부모와 MZ세대들이 찬양 Concert”

1905년 - 원산 대부흥
 1907년 - 평양 대부흥

 그리고,
 2023년 2월 - 애즈베리 부흥
 2023년 8월 - 달라스의 부흥



"WK(WITH KOREA) 챌린지"

MZ세대들의 자유롭게 하나되는 통일코리아를 표현하는 경연장, 상금 우승자(팀)에게는 \$3,000의 (제2회)복음통일 어워드를 드립니다.

* 상세한 참가방법 등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지도위원) 임현수 목사 TMC (지도위원)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지도위원)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지도위원) 이용희 교수 에스디기도운동 (분단원인/회개각성) 오창희 목사 원돌교회담임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굿뉴스보다 더 큰 목마름 (현장사업장) 신상태 목사 방곡현인연합교회담임 (통일영상의 필요) 윤학렬 감독 '월기방우씨' (북한현실/문화) 강동원 교수 동아대학교 (기독교자유의 가치) 김민아 대표 M Kim TV (북한이탈청신년통불과 양육) 이병철 목사 춘천주향교회담임 (준비위원장) 장햇살 목사 호스트교회 (탈북중인) 연광규 전도사 미국신학교유학중

2023년 8월 14일(월)~17일(목)



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문의 : 대회본부 (425) 775-7477 개최교회 (972) 395-9200 기타 (757) 634-2065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주관: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후원: 베다니장로교회

협찬: 기독일보



강준민 칼럼

눈부신 끈기와 지혜로운 끊기의 조화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유영만 교수께서 《끈기보다 끊기》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은 경제빙하기인 까닭에 끈기보다 끊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끊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소중한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보다 끊기”라는 표현보다는 “끈기와 끊기의 조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끈기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적절한 끊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끊기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눈부신 끈기가 필요합니다.

조지 모리슨은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는 모든 성자들의 특징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눈부신 끈기”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끈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눈부신 끈기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기는 곧 끈질김입니다. 끈질긴 사랑,

끈질긴 믿음, 끈질긴 인내, 끈질긴 기도, 끈질긴 견딤, 끈질긴 훈련, 그리고 끈질긴 헌신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눈부신 끈기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눈부신 끈기는 항상심을 의미합니다. 눈부신 끈기는 중요한 일을 위해 반복하며 헛수를 더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부신 끈기는 성취의 비밀입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끈기 있게 해서 안 됩니다. 가장 슬픈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끈질긴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관련 없는 일에 끈질긴 것입니다. 쓸모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해서 안 되는 실수를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든 반복해서 헛수를 늘려간다고 탁월함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헛수를 늘려간다면 더욱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적으로 반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창조적인 반복이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방법, 잘못된 시스템을 수정해 가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욱 나은 길을 모색해 가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멘토와 코치의 피드백을 받아 가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되고,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부신 끈기와 함께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끊기입니다.

눈부신 끈기만큼 소중한 것이 지혜로운 끊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가기 위해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마 4:20, 22). 끊기는 버림입니다. 버림은 비움입니다. 비움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떠나므로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버림을 통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끊기”는 악연을 끊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만남은 악연입니다. 좋은 만남은 잘 가꿔야 합니다. 하지만 나쁜 만남은 과감하게 가지를 쳐야 합니다. 나쁜 만남에 집착하거나 나쁜 만남을 끌어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헤어질 때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창 13:14-17).

“지혜로운 끊기”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강점이 아닌 것을 끊는 것입니다. “죽은 말에서 내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말을 타봅니다. 곧 다양한 일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그 말에서 내려올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40세가 되기까지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말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재능과 은사와 강점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움직이지 않은 죽은 말과 같은 일들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혜로운 끊기”는 잘못된 배움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열심을 더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롬 10:2). 오래된 지도는 버려야 합니다. 더 나은 지도, 더 나은 지식,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나은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컴퓨터 시대에 여전히 타이프라이터를 쓰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에이프을 떠나 광야에 들어간 사람이 여전히 에이프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광야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눈부신 끈기와 지혜로운 끊기에 조화를 이루어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송재호 칼럼

“첫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출애굽기 34:26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풍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사건 후 인류에게 결실을 맺기 위한 조건으로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하는 대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씨를 뿌리고 수고함으로 수확한 결실을 거둬드려 감사제를 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의 첫제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감사제가 하나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들이 출애굽 하여 가나안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땅에 입성하기 전 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의 생활은 유목생활이었고 그곳에서의 환경은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중 소망이 곡물을 수확하여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소산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던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맥추 감사절은 곡물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추수 감사절기중 하나입니다. 맥추 감사절의 이름은 보리와 모래 추수 직후에 거행되는 전통적인 절기인 칠칠절, 즉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

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절기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맥추절은 초실절로 불리기도 하는데 유대력으로 니산월 14번째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은 뒤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 선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이 초실절의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초실절”에 드렸던 곡식은 언제나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의 또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즉 “초실절”이 종교적인 이름이라면 “맥추절”은 종사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초실절”의 한자어는 ‘처음 초(初)’, ‘열매 실(實)’자를 써서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의 예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

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부활절의 모형인 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사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2023년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반년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감사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맥추감사절의 정신은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남아있는 2023년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기독교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이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T. 213.378.8530/213.674.7476

구봉주 칼럼

돕는 교회, 섬기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우리 감사한인교회에서는 2023년, 올 해부터, 3개의 미자립 교회, 또는 개척교회를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500불씩, 세 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자립교회라 하니,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닌 듯하지만, 적절한 표현이 없어, 이 표현을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란, 재정적으로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체 예배당을 운영할 만큼 재정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길 교회, 늘사랑 교회, 브림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일은 위브릿지라는 선교단체(이인규

대표)를 통해 시작된 후원사역으로써,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로 힘들어 하는 34교회들에 10만불 후원한 일이 동기가 되어 시작된 사역입니다. 이 일에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겠다고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생명의 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광복사님과 식사교제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막 40이 넘는 젊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미국에 신학공부를 위해 오셨는데, 신학공부를 하며 잠깐 동안 일을 하셨는데, 마침 일하는 곳에 함께 일하는 청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가 교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성경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의도치 않게 개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동안, 모이는 수가 소수여서, 계속해서 모이게 되었고, 마침내 장소를 렌트하여, 정식으로 개척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청년들 중 한 형제는 열애이 쪽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두 청년은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

다. 개척이후 현재까지 생명의 길 교회는 평균 10명 정도의 성도님들께서 출석하고 계신데, 좋은 백인 교회를 만나 예배당을 프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부부 집사님 내외분이 교회로 오게 되신 간증은 무척 은혜롭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 초등학교 아드님이 "아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 사람을 보내주신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일에 어떤 집사님 내외분이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집사님 내외분은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이신데, 플러튼에서 교회를 찾다가 생명의 길 교회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교회를 찾던 중이었는데, 두 집사님 내외분 마음에 그 교회로 가야 한다는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사님은 빨리 들어가듯 예배당으로 들어가셨고, 순간 10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앉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부답이 되어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일단 말씀은 듣고 가자 싶어서, 앉았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아 지금까지 예배에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 구

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양 반주는 피아노를 전공하신 사모님께서, 찬양팀 싱어는 초등학교 아드님이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목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는지 감사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요즘 시대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실까?"하는 생각이 들며 한편으로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인교회가 같은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사한인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의 부흥과 성장 발전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회와 선교지,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돕고 섬기는 특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만하기보다 오히려 같은 교회와 선교단체를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고종필 칼럼

교육철학 박사의 교회와 교육 이야기(4)



고종필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철학

"고지론"이라는 말이 있다. 전투에서 가장 높은 고지(高地)를 점령하면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큰 힘을 발휘했다. 10대 청소년들이나 열기 왕성한 20대 청년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자. 그리고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자"와 같은 메시지가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성적이 좋은 고등학생이 교회에 출석하면, 좋은 대학 가서 판검사, 의사, 정치인, 사업가가 되라는 격려의 말이 전해지곤 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 100일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무슨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입시 당일에는 하루 종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곳에서 부모님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자

신의 딸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기도한 부모님은 얼마나 될까.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 상(prize)을 걸어 놓고 경쟁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성경 암송을 잘하도록 상을 걸고, 전도를 잘 하도록 상을 걸고,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떠들지 않았다고 칭찬 스티커를 주기도 한다. 어린이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잭 클럼펜하우어는 보상을 통한 가르침을 받은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상을 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교회들은 앞다투어 여름성경학교(VBS)를 진행한다. 3, 4개월 전부터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이 모여서 주제를 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찬양과 율동 연습을 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공부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된다. 이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주는 단체나 기관도 꽤 많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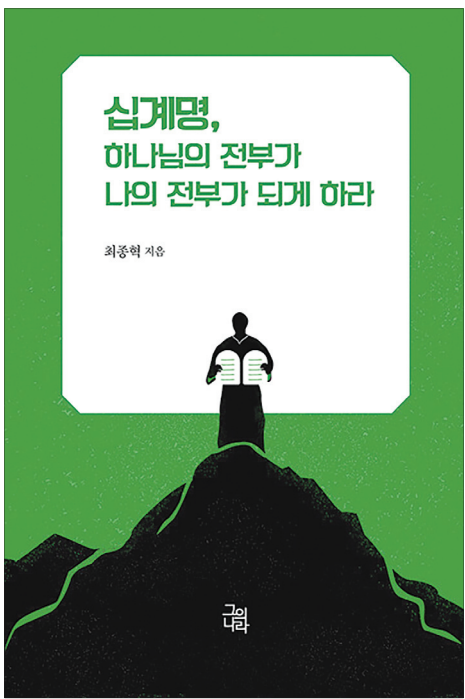
투입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경험? 정해진 주제에 대한 성경 말씀과 담당 교역자들을 통해 전해진 설교? 혹시, 이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교회의 역할을 일정부분 왜곡되어 바라보지는 않을까.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곳이라는 왜곡. 교회 학교에서의 가르침은 "고지를 점령하자"라거나, 행위에 대해 상(prize)을 주거나, 교회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고착화되면 안될 듯 싶다.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게 된다. 교회 생활에서의 행위를 통해 상을 받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로 여길 수 있게 한다. 정기적인 교회 출석은, 자신의 안정과 미래의 평안함을 보장받고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교회를 통해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그들끼리의 친교 집단"이나 "배타적인 이기주의자들"이라고 치부되는 것은, 성인 교인들이 교회 울타리를 크고 높게 세워 놓고, 자신들끼리의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도 그러한 가르침을 주어

야 될까. 오히려 어려서부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이웃에게 양보와 관대함을 보여주는 삶,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지 않더라도,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물(prize)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도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1899년, 조선 인구가 1,200만명이었고, 그중 기독교인은 7,000명 내지 8,000명이었다고 한다. 그들 대다수가 무식한 천민이었고 양반이라고 해도 대개는 출세 못한 남인들이었다. 세상적으로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 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종을 해방시키고, 백정을 형제라 부르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고지"를 점령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뒤로 물러남이 없었다. 교회 학교에서는 세상과 같은 성공의 기준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Advertisement for '원하트 청년 예배자 연합 수련회 '23' (One Heart Young Adults Worship Retreat '23). Includes speakers like Nam Hyun-soo, Yun Man, Han Tae-uk, Ran De-gim, Kim Do-il, and One Heart Ministry. Features a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One Heart Ministry.

[크리스찬북뉴스서평] 하나님의 전부를 사랑하기 위한 십계명

오늘날 구약의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십계명,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라

최중혁

그의나라 | 259쪽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 딱딱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십계명이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부흥과개혁사, 2005) 등을 통해서도 조명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현대 독자에게 또 다른 십계명을 다룬 책이 필요할까? 그렇다. 특별히 최종혁 목사가 쓴 <십계명,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라>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게 도전과 유익을 확실히 끼치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계명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의도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소홀한 책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그 뜻을 알게 하는 일보다 자기 생각을 늘어놓는 데 열심이 있는 저자가 얼마나 많은가?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좋은 신앙 서적은 그래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탁월해야 한다.

특히 계명의 표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계명에 담긴 법 정신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충실히 설명해 줘야 한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나름 안다고 자부하던 이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왔던 얇은 계명에 관한 지식을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뜻을 밝히 설명해 주심으로 교정하셨다. 이 책이 독자의 생각을 넓히고 바르게 교훈해 줄 것이다.

둘째, 계명의 오늘날 적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좋은 설교, 좋은 신앙 서적은 항상 독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도전한다. "이 계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는 이 책이 각 장에서 빠짐없이 제시하는 핵심 내용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거짓말하지 말자"와 같은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찾아 제거하도록 돕고, 재판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에서 각각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교회가 십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다(요 14:15).

그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과제를 제공한다.

셋째, 율법 앞에서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 저자 최종혁 목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한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저자가 상정한 중요한 전제다.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

희가 내 안에'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율법은 복음의 선순환을 타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어진 언약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께 돌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순종, 율법은 은혜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 받은 자들이 따르는 사랑의 보답이 된다.

넘어질 때도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채찍을 맞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 용서받고 다시 사랑으로 채워져 율법을 기쁨으로 따른다. 이 책은 복음의 건강한 순환 구조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면서 율법을 다루고, 항상 독자를 은혜 앞으로 이끈다.

넷째, 은혜의 능력으로 율법을 즐거워하게 한다. 죄인은 은혜를 방증으로 보답한다. 엄청난 율법 앞에 떨다가도 은혜를 말하면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될 여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율법을 잘 못 다루는 이들이 자주 범하는 문제다.

사랑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면, 은혜는 우리를 율법 순종으로 이끈다. <십계명,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라>의 큰 유익 중 하나는 계속해서 독자를 은혜로 또 사랑의

순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율법의 의미는 이렇지만, 이제 은혜 안에서 마음대로 살자' 혹은 '은혜는 이렇게 풍성 하더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하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사랑하도록, 행위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강권한다.

저자 최종혁 목사는 <성경해석,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숨겨놓지 않으셨다>(그의나라, 2018), <마음의 전쟁, 시편>(그의나라, 2020)으로 탁월한 성경해석과 강해를 통해 많은 독자에게 유익을 끼쳤고, 또 유령교회 목사로 10년째 섬기면서 시편 강해 설교 시리즈 등을 통해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도록 돕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십계명,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라>를 통해서도 그동안 교회가 건강을 되찾고 성장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십계명이 다시 한번 울마르고 구체적이고 은혜와 순종을 낳는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밝히 조명되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근:미야 6:16



"Stand at the crossroads and look; ask for the ancient paths, ask where the good way is, and walk in i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JEREMIAH 6:16

현대인의 필수품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으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시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오희용내과 HEE-YONG D.B. MEDICAL CLINIC

다이아몬드바 무료체험 오희용내과 내

20627 GOLDEN SPRINGS DR. SUITE #2 - D & E DIAMOND BAR, CA 91789 Phone : 909-480-0099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최후의 만찬' 속 종교개혁 상징

루터를 종교개혁 아이콘으로 만든 화가, 크라나흐

포도주 넘기는 루터, 성례전 회복 주로 등장 주민들 직업소명론 투영 다빈치 '최후의 만찬', 가톨릭 상징 크라나흐 제단화는 종교개혁 상징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the Elder, 1472-1553)는 독일 크로나흐(Kronach)에서 출생했다. 출생지 명칭을 따 크라나흐가 됐다. 부친 이름은 '화가 한스'(Hans Maler)로 알려져 있는데, 이름으로 보아 부친도 화가로 활동했던 것 같다.

크라나흐가 유년과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시대인 그뤼네발트(Matthias Grünewald)와 마찬가지로 현지 남독일 거장 밑에서 미술을 익혔을 것이다.

물론 아버지가 화가였던 관계로 재료를 다루는 법에서 주제를 잡고 인물을 묘사하는 법까지 그림의 기초를 숙지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루카스 크라나흐는 1505년부터 비텐베르크로 이주했고, 그의 작품 대부분이 이곳에서 제작되었다. 그렇게 된 데는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교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

마르틴 루터는 교황과 중세 교회에 반대하는 글과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크라나흐 역시 그런 사람중한 명이었다. 개인적으로는 1520년 루터가 크라나흐의 딸 안나의 대부가 됐고, 반대로 크라나흐는 루터의 장남 요하네스(Johannes)의 대부가 되는 등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였다.

크라나흐는 비텐베르크에 규모 있는 스튜디오와 인쇄소를 경영하였다. 전에는 비텐베르크 사람들이 책을 퍼내려면 다른 지역에 가야 했으나, 크라나흐의 인쇄소가 생기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크라나흐는 루터의 성경 삽화용 목판을 비롯해 각종 설교집, 기도서, 찬송가 등을 찍어냈고, 필요한 경우 삽화를 넣어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쉽 없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마르틴 루터가 정기적으로 설교했던 비텐베르크 시(市) 교회의 제단화이다. 이 작품은 크라나흐가 시작하여 그의 아들(Lucas Cranach the Younger)이 마무리한 것이다. 2대에 걸쳐 제작할 만큼, 이 작품을 '필생의 역작'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리라.

이 대형 제단화는 앞뒤로 모두 여덟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정면 중앙에 최후의 만찬 장면이 보이고 그 좌우로 세례와 신앙 고백, 교회에서의 설교 장면과 회중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루터의 신학을 충실하게 따랐다 해서 '종교개혁의 제단화'로 불

리기도 한다.

이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화면 중앙의 <최후의 만찬>(1547)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인물은 요한 사도, 예수님 오른쪽 인물은 가롯 유다이다. 그는 표면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제자들의 발이 가려져 있는데 반해 그의 발은 바깥으로 나와 있어 일탈행위, 즉 '배신'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 우편에 가슴에 손을 얹고 무언가 비장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로,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고 맹세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다. 크라나흐는 식탁 위에 올라온 양의 이미지를 통해 희생양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

그림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오른쪽의 포도주를 건네는 장면이다. 사도들 가운데 루터가 앉아있는데, 루터는 검은 망토 차림을 하고 있다. 이는 뿌리를 잊은 공동체에서 성경의 진리를 외치다 되레 미움을 사 교회로부터 축출됐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크라나흐는 이 그림을 보며 감상자들이 루터가 얼마나 탄식하며 분노하는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 힘썼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복장 하나에도 주의 기울였다.

그러나 이것이 그림의 핵심은 아니다. 루터는 몸을 돌려 옆에 있는 청년(크라나흐의 아들로 추정)에게 가득 찬 포도주를 넘겨주고 있다. 포도주를 받는 인물은 의외라는 듯 약간 놀란 표정인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식 때에 회중에게 떡만 나누어주고 잔은 주지 않았다고 한다.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은 사제들의 성례로 독점되었다. 심지어 사제들은 일반 신자가 성찬 때 떡을 받는 것조차 위협하게 생각해 사제들이 회중을 대신해 떡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루터는 신자들에게 몸과 피를 모두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마 교회의 잘못된 성례관을 공박한 루터의 논문 '교회의 바벨론 포로(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1520)'에 의하면, 성찬은 교회의 부자와 권력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루카스 크라나흐, 비텐베르크 제단화, 패널에 유채, 1547.

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도 떡과 잔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자에게 잔을 빼앗는 것은 로마 교회의 횡포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전의 원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상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루터가 청년에게 포도주를 주는 것은 성찬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성찬은 사도들과 사제들에게만 돌아가는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루터 곁 인물 한스 루프트(Hans Lufft)의 존재로도 확인된다. 크라나흐는 화면에 '성경 판화가'로 불리는 한스 루프트를 등장시켰다. 그를 기용한 것은 그가 교황이나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이종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깨우치려는 의도에서였다.

나아가 루터의 '직업소명론'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신학자 최주훈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두 루터 당시에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 주민들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한스 루프트 같은 인물을 등장시킨 데는 특별한 이유, 곧 루터의 '직업소명설'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가톨릭 정신을 구현한 것인데 비해, 크라나흐의 '최후의 만찬'에는 종교개혁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그같은 시도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단히 혁신적이다.

독일 신학자 마르고트 캐스만(Margot Kaßmann)이 말한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글로 표현했다면, 크라나흐는 신앙을 그림으로 해석하고 표현해서 확산시켰다. 루터를 종교개혁의 아이콘으로 만드는데 큰



루카스 크라나흐, 비텐베르크 제단화 중 최후의 만찬, 패널에 유채, 1547.

몹을 한 사람이 크라나흐였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고대 로마 유적을 보며 당시 예술가들이 강력한 자극을 받아 일어났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예술가들은 순수하게 기독교의 뿌리로 돌아가고자 한 종교개혁가들을 따라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의식을 찾았다.

종교개혁가들이 중세 유럽의 탁한 대기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듯, 크라나흐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적극 동의해 그 정신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해낸 것이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Advertisement for 'my stylist' hair salon. Features various hairstyles, pricing for haircuts (\$40-\$20) and styling (\$15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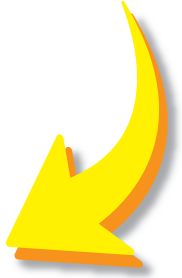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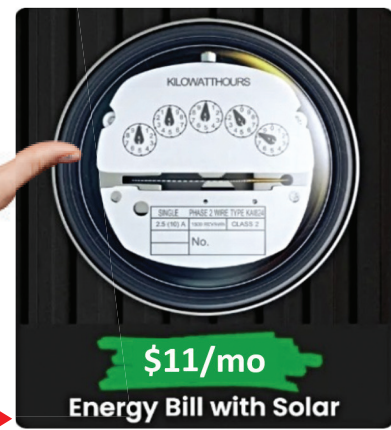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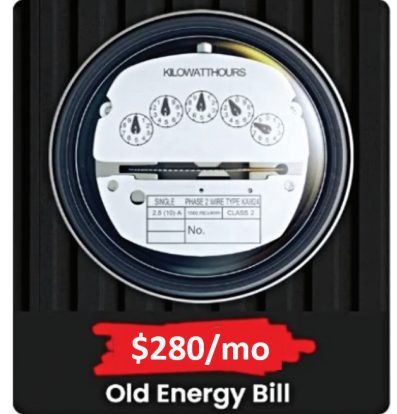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SCAN ME

**100%
Made in
USA**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소개 해주신 분께 시공 완료 후 500 불을 드립니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2~3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